

# 다구를 찾아서

17 차의 보관



## 항상 거처하는 곳에 두어라

차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여야 처음처럼 차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이다.

초의 스님은 <다신전(茶神傳)>「장다(藏茶)」편에 “만든 차가 건조되면 먼저 늘 쓰던 합(盒) 중에 가득 넣고서 겹에는 종이로 입구를 봉한다. 삼일이 지나서 차의 본성(本性-차의 색향기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은근한 불에 완전히 말려서 식은 후 단지에 보관하는데 차를 살짝 쌓아 채워서 여린 죽순의 껍질로 입구를 쓴다. 편 죽순 껍질과 종이로 여러 겹 단지의 입구를 팽팽하게 봉한다. 그 위에 불에 물었던 식은 벽돌로 눌러 고정시켜 다육(茶育-차를 말리거나 보관하던 기구로 장마철에는 숯불을 넣어 차의 습기를 제거하던 도구) 속에 넣어 보관한다. 일체 바람이나 불기운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을 쏘이면 차가 냉해지기 쉽고 불이 닿으면 누렇게 되기 쉽다.



당물차호(唐物茶壺). 남송-원대(13~14세기). 일본 덕천(德川)미술관 소장. 높이 39.7cm, 구경 11.4cm, 몸통둘레 33.2cm, 바닥지름 12.7cm.

「造茶始乾先盛舊盒中外以紙封口過三日後其性復復以微火焙極乾待冷貯壺中輕輕築實以箬若縹緊將花笥箬及紙數重封壺口上以火煨磚冷定壓之置茶育中切勿臨風近火臨風易冷近火先黃」라고 하였다.

초의스님은 이를 통해 차를 만든 후 차의 색향기미(色香氣味)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차를 보관하는 방법을 소상히 적고 있다. 차를 만든 직후에는 차에 불기운이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차를 안정시키고 불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일을 기다렸다가 재건(再乾)한다. 약한 불로 다시 차를 말리면 흑시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차를 담은 항아리 입구를 불에 달궈다가 식힌 벽돌로 눌러 고정시키는 것은 방습(防濕)을 위한 방법이다. 특히 다육은 원래 육우의 <다경(茶經)>에 차를 건조하는 도구로서 단차(團茶)를 만들 때 쓰던 도구인데 중국에서는 장마철에 차를 습기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현재에는 비닐포장지와 진공포장기술로 습기와 잡냄새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 죽순의 껍질과 한지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선인(先人)들의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관찰력

에 놀라울 따름이다. <다신전>뿐만 아니라 당대(唐代)부터 명(明)·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다서(茶書)에는 빠지지 않고 차를 보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차를 보관하는 곳의 공통점은 이렇다. 첫째,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하고 냉한 것을 싫어한다. 둘째, 냄새나는 것을 싫어한다. 셋째,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싫어하지만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두지 않는다. 특히 명대 허차서(許次紱)는 다소(茶疏)에서 “차를 보관하는 장소는 모름지기 항상 거처하는 곳에 둔다. 사람의 온기가 가까우면 항상 따뜻하고 차갑지가 않다. (중략) 마땅히 차를 두는 단지의 평상에는 건상(巾箱)이나 서록(書籠)을 두지 말라. 더욱 금기할 것은 음식그릇과 함께 두는 것이고 향약(香藥)을 함께 두면 차에 향약의 냄새가 배고 해미(海味-해초, 해산물)와 같이 두면 차에 해미 맛이 배게 되고 그 나머지 종류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하루에 불과한데도 누렇게 변하게 된다.” 고 하였다.

차를 잘 보관하고자 냉장고나 창고와 같이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차단된 곳은 피하고 되도록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는 오염이 쉽게 되는 것이기에 음식물이나 향이 강한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차를 꺼낼 때에는 손으로 집어내기 보다는 차시나 차척을 사용하고 차를 꺼낸 후에는

꼭 밀봉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의 보관이 차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 일본에서는 차를 담은 항아리(茶壺)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다. 초겨울(11월)에 불에 만든 신차(新茶)를 넣어서 밀봉해 뒀던 차항아리를 개봉하는 개봉차회(開封茶會)가 열린다. 이때에는 차항아리가 차회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좋은 차항아리도 수집의 대상이 된다. 위 사진의 차항아리는 원래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 소유였다가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을 거쳐 현재 덕천(德川)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물(唐物)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말한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8 월정사 숲길에서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을 걸었다. 한 발 두 발 숲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숲에 깃든 모든 것들을 내주었다. 숲은 늘 그랬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내주었다. 숲이 만든 바람과 햇살을 내주고, 견고 있는 고독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그 고독이 놓고 간 고백들을 영원한 침묵으로 지켜줬다. 분명 자연이 사는데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며 숲길을 걸었다.

스님들이 숲길에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지나온 서로의 발자국을 밟으며 다시 숲길을 걸었다. 어쩌다 숲길을 걸으면 그 시간은 왠지 특별하다. 그것은 평소에 쓰지 않던 '마음'을 꺼내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길은 그랬다. 마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에게만 '길'이었다.

### 옛 판화의 세계

#### 법음을 전수받아 법요를 얻다 (膽巴國師)

원나라 때 서천족의 옛 달마실리로부터 법음을 전수받아 익혀 비밀리에 그 법음을 얻은 담파 국사, 성종황제가 북방지방을 순찰하자 코끼리가 모는 가마를 타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장면이 삽화로 판각되어 있다. 운천이라는 지방을 지나다가, 이 땅에는 신령한 괴물이 있으니 황제가 탄 가마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비밀신주를 지니고 이를 기피하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이에 비바람 속에서도 황제의 행전만은 아무 근심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원나라 때 서천족의 옛 달마실리로부터 법음을 전수받아 익혀 비밀리에 그 법음을 얻은 담파 국사, 성종황제가 북방지방을 순찰하자 코끼리가 모는 가마를 타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장면이 삽화로 판각되어 있다. 운천이라는 지방을 지나다가, 이 땅에는 신령한 괴물이 있으니 황제가 탄 가마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비밀신주를 지니고 이를 기피하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이에 비바람 속에서도 황제의 행전만은 아무 근심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담파 국사는 몽골 문자를 만든 파스파의 제자이며 스승의 천거로 황제를 보필하게 됐다. 다양한 기적을 통해 황제들을 교화해 국사에 위치에 올랐으며 입적한 후에는 황제로부터 '대각보혜광조무상담파제사'란 시호를 받았다. 담파 국사의 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오게 한다든지, 기도도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병을 낫게 하는 등의 영험함을 나타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철학적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하거나 좋아한다는 한쪽 면에만 치우친 편견은 버릴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도 이제는 수행을 통해 이 시대의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쓰디쓴 신도들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영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영무세의 메아리만 들리는 불교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영험으로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환희심이 넘치는 수행공동체가 될 것이다.

원정 연간에는 해도가 국경을 침범해 오자 마하갈라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윽고 항복문서가 도착했다고 전해진다. 담파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학박물관 관장)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담파국사(膽巴國師).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x18.0cm.

## 부적총만법

###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 著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